

최양업 토마스 신부 탄생 200주년 순례 ‘그길을 따라 걷다’ 체험 수기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순례지 체험수기

감곡 성당 박영석 방지거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탄생 200주년 기념 시복시성 기원 순례를 시작하면서 매일 시복시성기도문을 저녁기도 시 거르지 않고 실시하면서 16곳을 찾아다니면서 그분의 관련되신 분들을 생각해 보고 나의 삶을 묵상케 했습니다.

나는 칠십년 세월 속에 하루하루의 일과가 소중하고 행복했습니다. 음성 봉암공소의 지구 신부님들과 함께 미사로 시작으로 15곳을 찾아 돌아보면서 200년 전 전 토마스신부님께서 걸어서 그것도 포졸들의 눈을 피해서 형제들을 만나고 신자들을 만나 시고 하느님을 증거하시는 신부님의 모습을 상상케 되고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종로 순례지성당, 서울 당고개 순교지를 찾을 때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아파트 속 빌딩 속에 단층에 건물로써 토마스 신부님께서 신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을 연상케 했습니다.

안양 수리산 교우촌을 찾으면서 200년 전에 모습이 이제는 먹거리 장소로 생계의 장소로 변화된 모습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부연 도양골을 찾을 때는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이름만큼이나 화려할 줄 알고 찾았는데 첩첩산중 굽이굽이 돌고 네비는 목적지 부근을 가르치고 다왔다하며 종료를 하는데 성지로 같이 보이지 않았다. 그곳을 찾기 위해 주의 부분을 살살이 뒤져 마치 산자락 밑에 돌 하나 세워져 있고 바위돌 하나 넓적한 것이 깔여 있고 최경환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님의 부모 이성례 마리아님의 동상 앞에서 주님의 기도를 바치면서 그분들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지금의 저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초라한 가옥이 한 채 있고 닭과 개가 있어 주변을 돌아보니 누군가 기거하고 계시는 것 같아 한바퀴 돌아보니 제 눈에는 엄청 젊으신 분 같았는데 말을 건네보니 신부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오로 신부님 첩첩산중에 상주하고 계시었습니다. 마치 이백년 전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을 보는 듯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나의 소개를 하며 감곡성모순례지 성당에 다닌다면서 소개 드리고 드릴 것도 없어 내가 가지고 간 간식을 드리니 신부님께서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며, 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고 집으로 귀가하니 한밤중 나의 몸과 마음은 피곤과 녹초가 되어 저녁기도 후 잠을 청하는데 정신없이 자고 일어나니 몸이 피로를 못 느껴 또 하루를 시작해 본다.

청양 다락골 새터 탄생지를 방문하면서 성지개발이 된 모습만을 보고 돌아와서 할 말 쓸 말이 없었다. 허나 그분의 선조들의 생애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곳곳하게 지켜내신 신앙을 본받아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남은 시간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생활하는 삶으로 변하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돌아오는데 몸에 피곤함과 노곤함이 어찌나 힘이든지 우리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생애가 절로 생각나는 시간들 이었습니다. 당시는 도보로 순례의 길을 걸으시면서 신자들을 만나시며 생활한 신부님의 모습을 그려보며 나는 그래도 차로 이동하면서도 행복을 느끼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산 방남제 성지 방문 성지를 찾아서 도착한 곳, 철망 주위에는 나를 반기듯이 울타리에는 장미가 만발이었습니다. 안에 들어서니 기념비와 초 봉헌하는 곳에서 가족들을 위한 초 봉헌을 하는 미카엘라의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감사해 함께 기도하면서 주변을 돌아보고 밖으로 나와 솔밭에 나와 싸간 도시락을 먹으며 식사 후 귀가하였습니다.

광안성당을 순례하면서 마침 도착하고 보니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모임이 있는 날한 자매님의 배려로 편안한 순례가 되었다. 광안성당에서 대한 이야기와 수영 장대 순교자 참배할 수 있는 장소를 안내하여 주었다. 찾아가는데 주의는 아파트에 싸여 있고 동네는 골목길 돌고 돌아서 기도하면서 주의를 보니 마을 분들이 쉬고 계셨다. 말을 건네보니 신자들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았는데 신자는 아니었고 주위에 사시니 박사들인 것 같았습니다. 신자들이 하나, 둘 모이는 것을 보더니 슬며시 다가고 없었습니다. 기도를 마치며 돌아와 집에 도착하니 9시가 훨씬 넘는 시간이었다.

울산에 도착하니 비가 계속 오는 것이었습니다. 성당은 마을 속에 돌고 돌고 성당 가운데 두고 찾아 돌아보니 비는 오고 여기까지 왔는데 미카엘 대천사, 가브리엘, 라파엘 대천사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서 우리 미카엘라 비는 오는데 카센터에 가서 말을 건네니 나와서까지 안내를 해 주셨다. 우리는 성당 안에 들어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와 차 안에서 도시락으로 해결하고 순교자 동상에서 주님의 기도를 바치면서 돌아왔다.

군산 신시도 체류지 찾아서 순방하면서 신부님의 생애를 묵상해 보았다. 멀리 바라 보이는 이곳 팻말만 있는 곳, 프랑스의 분들과 함께하신 신부님 배는 좌초하고 얼마나 황당 시간을 보냈을까 당시 주변은 천주교회를 박해하는 시대의 얼마나 난감하셨을까 그분들이 아니면 지금의 천주교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을까 절로 묵상케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와 같은 생각으로 찾아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사람들을 보니 아들, 며느리, 손자 하나, 두 부부가 함께 여행차 들려다했고 부산에서 왔다 했다.

사진 좀 찍어달라 부탁하고 우리는 신부님 기리는 팻말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주님의 기도를 드리며 찾아다닌 어려운 시간을 이야기하며 가지고 간 도시락과 간식을 먹으며 시간을 보내다가 기도 후 집으로 돌아오며 너무나 빨리 찾아온 아픔과 괴로움이 나의 발목을 찾아오는 것을 느끼면서 힘든 귀향길이 되었다.

이제는 무엇을 해보고 싶은 의욕이 생기질 않고 괴로운 생각만 들었으나 신부님의 생애와 젊은 나이에 과로로 선종하신 신부님 생애가 선교에 활력소가 된 일을 보면서 나의 마지막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어떻게 정리하여야 할까 생각해 합니다.

남에게 폐 끼치는 일이 없게 하루하루를 기도하며 생활하기
아들 신부님과 딸 수녀님 하느님의 일 하시게 신경 쓰이지 않게 생활하기
우리 미카엘라와 함께 감사하는 생활하며 보내기
감사합니다. 행복했습니다. 기도하며 함께 한 시간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땀의 증거
자 순례지 책자 순례하면서 그 길을 따라 걷다.

2022년 6월 22일 마침, 박영석 방지거, 곽명열 미카엘라